

# 완도군, 해양치유 블루존 사업 본격 추진

## 해양바이오 연구 및 지역 혁신 기반 구축

완도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6월 27일 세종정부컨설팅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완도군을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여 전국 27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업무협약 심사와 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완도군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안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협약체결 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협조부처의 연관 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각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182억 원(국비 91억, 도비 27.39억, 군비 63.7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상청이 협조하여 5개 단위 사업 내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5개 단위 사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하여 차세대 3대 주력 산업으로 비아오텔스 산업 육성 발표에 따라 완도군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바이오 연구 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양 듬뿍 '강진산 쌀귀리' 수매 완료



소득이 높은 고소득 월동작물로 두보식품에서 수매한 총량은 약 500톤, 수매가는 10억원에 달한다. 수매된 쌀귀리는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된다.

군은 지난달 26일 64명의 쌀귀리 계약제배 농가를 대상으로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의 쌀귀리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 (주)두보식품 김영현 전무와 사전 수매 설명회를 통해 수매기준 안내 등 사전 출고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보리 수제재가 폐지됨에 따라 농민들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잡곡 유통업체인 (주)두보식품과 계약제배를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농협 위탁 수매를 추진해 조곡 40kg 기준 8만원에 쌀귀리 계약을 성사시키며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쌀귀리는 보리에 비해 1.5배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산이면 산두마을,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선정

### 1석2조 주민소득 창출

해남군 산이면 산두마을이 2019년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전남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100㎾ 규모의 태양광 설치 사업비 2억여원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 산이면 해월마을이 선정된데 이어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에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두번째로 실시되는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을단위의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도군, '어촌뉴딜 300사업' 내실화 총력

진도군이 최근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윤현석 부센터장을 초빙해 어촌계장 마을 리더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 변경된 공모 기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사업 이해, 주민참여도 제고, 어촌계 개방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힐링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다.

군은 지난 5월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보전지구, 금감항, 회동지구, 굴포항 등 9개소를 신청할 계획으

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주민참여형 예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각 지구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회의, 현장 조사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변경된 공모기이드라인에 어촌계 개방 노력도 접수가 1.5점에서 5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어촌계 기업 조건 완화, 정관? 규약 개정 등 어촌계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열악한 어촌 지역의 어항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에 보전지구, 금감항, 회동지구, 굴포항 등 9개소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영암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개최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28건 선정



반영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심하게 과제를 검토하여 선정했다.”며 “다양한 계층이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굴되는 정책개선사항을 밀도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완료

###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 만족도 향상 대책 추진

목포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완료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1일 까지 40일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민원인으로 가장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전화 수신태도, 종료 태도, 응대태도 대화태도, 체감민족도 5개 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4년 공직자의 민원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분석해 민원응대 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친절한 전화응대 자세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에 종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조리 신고 안내 청렴엽서 및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정례조회 시 청렴결의문 낭독, 전직원 청렴방송 청취, 직원PC 청렴화면보호기 제작·설치 등 강력한 자정 노력으로 청렴분위기 정착에 힘쓰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친절이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덕목중의 하나다. ‘친절’이 ‘청렴’이라는 자세로 민원 처리를 생활화하고,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